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한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7
4	讲义	53
5	퀴즈	72
6	보고서	76
7	자료	78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이 강좌의 목적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된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대북제재, 생활수준 등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북한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경협,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 02

#### 학습목표

- (1) 북한경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경제 및 통일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은 북한경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의 북한경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해
2주차	해방 직후~1960년대의 북한경제
3주차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
4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경제개혁
5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
6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
7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산업
8주차	대북제재
9주차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10주차	북한의 인구변동
11주차	남북경제협력
12주차	통일한국의 경제: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주차

##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

### 3-1

###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제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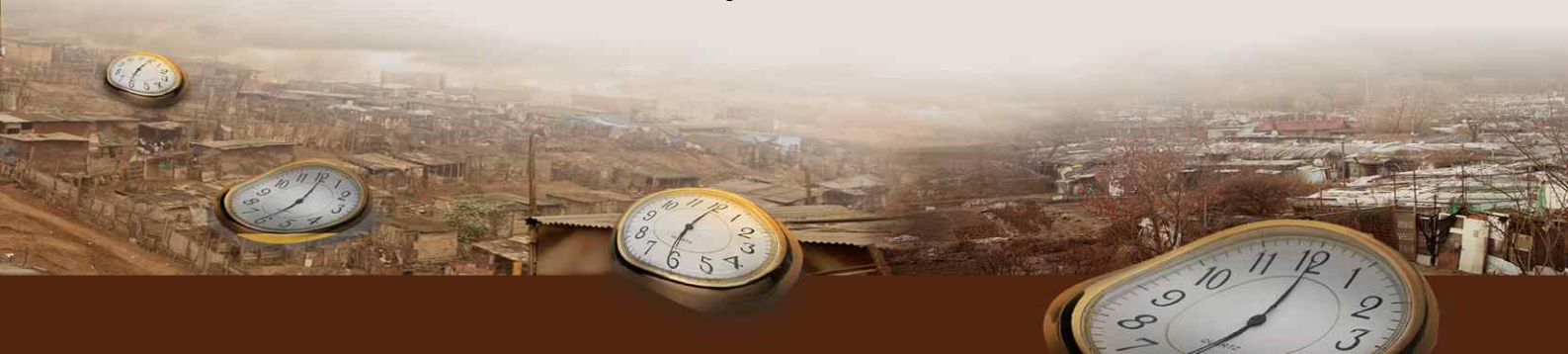
이전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었는가, 또 당시 북한의 경제성장 실적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1950년~196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구축을 실현해 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60년대까지 살펴본 이전 강의에 이어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가 정체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등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꾀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모색했음에도 북한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알려진,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 고난의 행군은 왜 발생했으며, 그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북한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강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1960년대 들어와 북한경제의 성장 실적은 크게 둔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50년대 후반 10%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들어와 4%대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실적 둔화 양상은 1961년에 시작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진행 경과가 잘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1967년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계획이 종료된 것은 1970년입니다. 계획 기간이 3년이나 연장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표했던 것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 들어와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1년 6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1976년에 끝나야 하는데, 북한은 1975년 8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목표 시점보다 앞서 계획을 실현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북한은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1977년까지 2년간 완충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6개년 계획의 계획 기간은 1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획은 어떠했을까요? 북한은 1978년 제2차 7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다음 계획은 1985년이 아니라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실적이 부진해 2년간의 완충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 기간이 반복해서 연장되었다는 것은 당시 북한의 경제실적이 부진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이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전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성장률은 13%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4.1%까지 낮아진 데에 이어, 1970년대에는 2.9%, 1980년대에는 2.4%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970년대 한국은 고도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림은 1970년대 한국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 10년 중 6년에 걸쳐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0.5%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한 반면, 남한은 연평균 1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970년~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의 소득수준 격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전 강의에서 1960년대까지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보다 높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2주차 강의에서 1970년까지 살펴본 그림을 1990년대까지 연장해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된 자료는 2주차 강의 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보시면 1970년대 초반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상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역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남한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실현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저성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 소득 수준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보다도 훨씬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북한경제가 1970년대 이후 이처럼 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인상적인 경제실적을 달성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위기 상황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북한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흔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북한경제 악화의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 유인, 즉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또 연성예산제 약 문제로 인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할 유인이 없다는 점, 기관 본위주의로 인해 사회주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생산이 부진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초기에 추구하는 외연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주차 강의에서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저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도 북한경제가 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대외무역을 최소 규모로 제한해 왔습니다. 가급적 자급자족하는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 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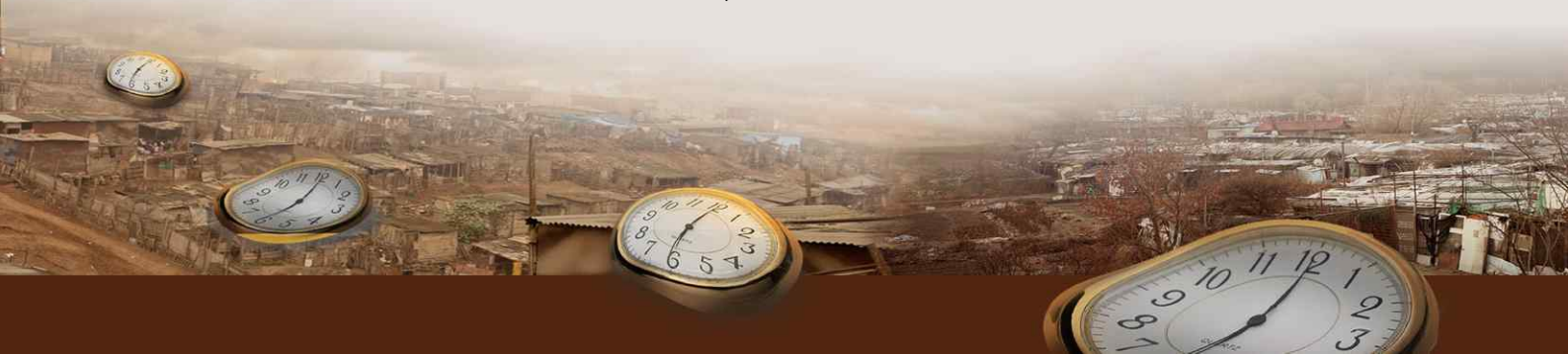
그러던 북한이 1970년대 들어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대외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왜 바뀌었던 걸까요?

우선 당시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동서 데탕트라고 합니다. 1971년 미·중 간에 이루어진 핑퐁외교와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등으로 인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핑퐁외교란 1971년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중국 선수단이 미국 선수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했고, 미국 선수단이 중국을 방문해 친선경기를 가짐으로써 양국 분위기가 크게 호전되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북한도 이러한 동서 데탕트라는 국제적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북한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원칙과 상호 중상·비방과 무장 도발의 중단, 다방면에서의 교류실시, 서울-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1972년의 일입니다.

북한이 서방세계에 손을 내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자립경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경제는 자립경제를 추구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를 할려면 많은 기계가 필요한데, 북한은 기계공업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또 산업기술 수준도 낮아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50년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당시,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미 제1차 7개년 계획이 3년이나 연장되는 경험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면서 북한은 1972년부터 서방 국가들로부터 차관 등의 형태로 기계·플랜트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게 됩니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 차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1974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일쇼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고, 북한은 차관을 상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고, 갈수록 그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북한은 1986년 서방세계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방세계에 손을 내밀기도 했으나, 때마침 발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대외경제관계 확대 시도가 실패로 이어지면서 경제 악화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0 ~1980년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2

1970년~1980년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1960년대부터 북한경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1970년대 들어와 서방세계에 손을 내민 것도 그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1980년대에는 그 외에도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시도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1970년~1980년대, 특히 1980년대 북한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변화를 모색했는가에 대해서 경제관리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관리체계에서 나타난 변화는 크게 보면 중앙에 집중된 기업 관리 권한을 하부기관과 기업에 분산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분권화와 자율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경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조치를 보겠습니다. 1980년 '새로운 공업관리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핵심은 기업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 간의 연관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앙에서 기업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체제가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도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기업소는 여러 기업들을 수직적으로 혹은 수평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경영 단위로 만든 것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00제철 연합기업소의 경우, 00제철소를 모체기업으로 하여 이 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소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기업을 묶으면 중앙에서 관리하기가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중앙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이 연합기업소에 위임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에 연합기업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4년입니다. 기간산업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되다가 1985년부터 전 산업 부문에 걸쳐 전면 도입되었고, 1983년까지 38개이던 연합기업소는 1986년 9월에는 120개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조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1984년 말부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독립채산제는 기업이 이윤 일부를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손실 발생 시 이를 부분적으로 책임지게 하여 기업의 재무적 측면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직후 독립채산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윤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독립채산제는 명목상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와 기업이 이윤 가운데 일부를 유보해 두었다가 생산 확장, 기술개발, 상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주차 강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말씀드리면서 이윤 유보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 북한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4년에 '8·3 인민소비품'생산을 허용한 것도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8·3 인민소비품'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지방에 있는 유희 원료나 자재, 폐기물,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필수품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안 쓰고 놀리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생필품입니다.

8·3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이 조치가 취해진 시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1984년 8월 3일 평양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폐자재나 부산물을 이용해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운동을 벌이라고 지시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유휴 원료나 자재 등을 사용하게 했으니, 8·3 인민소비품 생산 시에는 중앙집중적 물자공급체계를 통해 조달받은 물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3 인민소비품의 생산 품목, 생산량, 처분 방식은 기업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8·3 인민소비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허용한 것은 계획경제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공식적으로 용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1980년대 나타난 변화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1984년 제정된 합영법입니다. 합영법의 핵심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합작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1970년대 북한이 서방세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들여왔으나 이를 갚지 못해 외채 문제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합영법 제정은 외채 문제로 인해서 차관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대안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영법 제정은 서방세계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차관 도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해 온 북한임을 고려하면 합영법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등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대부분 조총련계 동포에 의해 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조총련이란 일본에 거주하는 친북한계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가리킵니다.

서방 국가들이 관심만 가졌을 뿐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 도로나 항만과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다, 기업이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들어와, 특히 1980년대 중반 들어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제관리 권한을 분산하며,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북한 경제관리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86년부터는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급속하게 냉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된 걸까요? 국내적 요인보다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1986년에 소련과 중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렇게 소련과 중국에서의 경제개혁이 정치개혁과 민주화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칫 경제개혁을 잘못 추진하면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개혁 조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그동안 시도되었던 변화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발생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3-3 '고난의 행군' 발생 배경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발생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대 말까지 북한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시스템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고, 국가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은 보장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은 이 시기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기근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불과 20여 년 전인 1970년 무렵만 해도 소득 수준이 세계 중위권 정도였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했던 북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경제위기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1980년대 경제실적 부진 원인을 살펴보면서 언급했던 만큼,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1980년대 들어와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부 이루어졌으나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지속되었다면, 1990년대 북한경제가 것처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변화 노력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 또한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컸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들 국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개혁과 '글라스노스트'라 불리는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그 영향을 받아 민주화, 개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헝가리가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체제를 전환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처럼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이전까지 에너지, 기술 등 경제의 핵심 부분을 사회주의 국가들에 의존해 왔습니다. 특히 소련의 대북 원조와 무역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더 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적 기강이 무너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정치적 독재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독재자의 유고는 정치적 기강이 유지되는 데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강이 약화 된 결과 계획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레스트로이카 말기 소련 경제가 위기를 겪은 것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정치적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독재체제의 정치적 기강이 무너진 결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도 김일성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 공포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4년 여름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오랫동안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를 준비해 왔지만, 여러 측면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단적인 예로 식량 배급제도가 무너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식량 위기 당시 북한의 식량 배급제는 붕괴되었고,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안정되어 있었다면, 식량이 부족할수록 배급제가 더욱 철저히 시행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량 생산이 부족해지자 협동농장에서는 국가에 상납해야 할 식량을 숨겼고, 식량 수매와 수송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관료들도 국가 전체를 고려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지역, 자기 몫 챙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김일성 사후 북한의 정치적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특히 심각했던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식량난의 충격이 컸던 만큼, 식량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식량 사정은 1980년대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나타난 몇몇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1987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식량 배급을 애국미 명목으로 10% 삭감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소규모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텃밭에서 경작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자, 주민들이 배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1991년부터 '하루 두 끼 먹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식량 배급을 다시 10% 줄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들어와 식량난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등 일부 지방에 대한 식량 배급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 지역 주민 중 일부가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 등지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의 식량난 보도에 대해 북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려는 사악한 시도라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들어와 북한 당국은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나빴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1995년 5월 식량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국과 일본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6월 45만 톤의 식량원조를 실시하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사실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여름에는 대홍수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UN 등 국제사회에도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1996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거의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 등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를 기점으로 북한에서 대규모의 심각한 기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하게 됩니다.

1997년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던 국제기구와 NGO 단체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고, 북한에서 이미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는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식량 위기의 절정은 1995년~1997년이었습니다. 1998년부터는 식량 배급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하는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은 조금씩 나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식량 부족 국가에 북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농업에 대해 다루는 8주차 강의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식량 생산 규모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FAO 즉, 유엔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1990년경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까지 식량 작물 생산 규모는 계속해서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 식량 생산 규모의 변화폭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북한 식량 생산이 감소한 것은 틀림없지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 식량 작물 생산량을 추정한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추정치입니다. 그림은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식량 생산이 감소하긴 했지만, FAO의 통계만큼 감소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 통계가 현실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서 적잖은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편으로는 감소 폭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쪽 통계가 현실에 가깝든, 1990년대 중엽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북한의 식량 생산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연재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1995년과 1996년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대한발, 즉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특히 1995년 대홍수는 유엔 세계기상기구에서 지난 50년간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북한이 입은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장기간 지속해서 농업생산조건이 악화되어 온 것 역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농지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 자급자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직후 1,000만 명이 안되던 북한 인구가 1990년대에 이르면서 2,00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 자급을 위해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산림 훼손을 가져와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연료가 부족해 난방과 취사용으로 목재 남벌이 광범하게 이루어져 산림이 파괴된 것도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 농업투입물 공급이 빠르게 감소한 것도 식량 감소의 주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투입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화학비료일 겁니다. 그런데 FAO 통계를 보면, 1994년~1995년 북한의 화학비료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화학비료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일까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비료 생산 공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식량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집단농장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농장 체제에서는 농민 개개인이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장원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장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장 전체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농장에 부여된 목표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는데, 목표 생산량이 너무 높아 초과생산 자체가 어려웠던 데에다, 초과 생산량도 국가에서 매우 낮은 국정가격으로 수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도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기본 생산 단위인 분조의 규모를 10명~25명에서 가족, 친척으로 구성된 5명~10명으로 줄였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농장에 부여하는 생산 목표량을 낮추고 초과 생산분을 국정가격으로 수매하는 대신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농민들은 국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농장원들이 보다 열심히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협동농장에 충분히 도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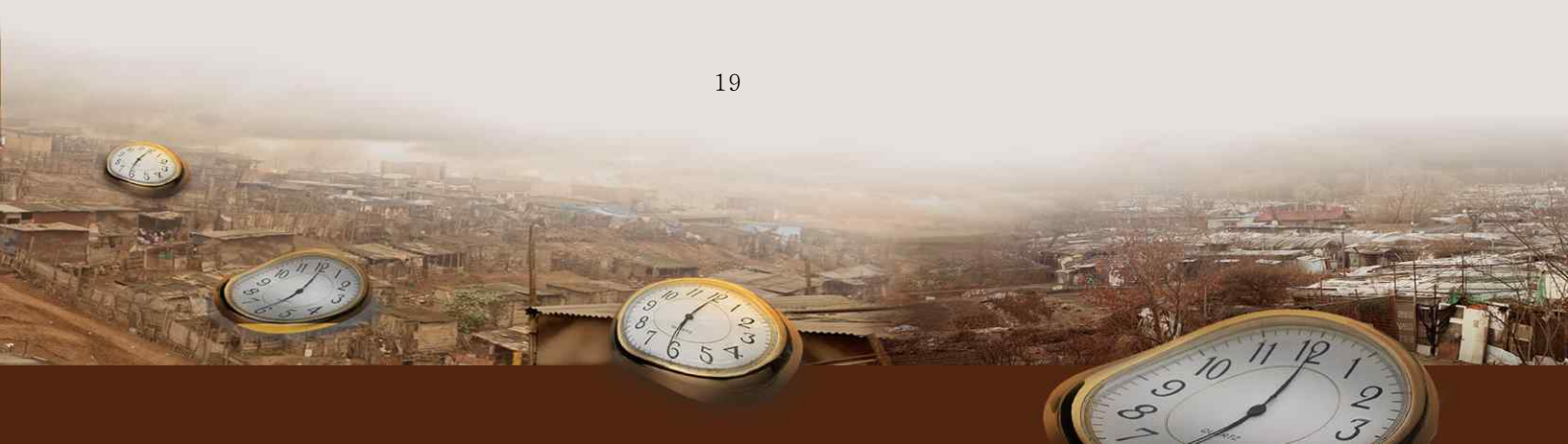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이번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발생 배경에 대해 경제위기와 식량 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준 충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3-4

## '고난의 행군'의 충격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경제는 얼마나 악화되었고, 그 피해 규모는 어떠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고난의 행군이 가져온 충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북한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1999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입니다. 플러스 성장을 한 1999년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1998년까지만 구해보면 -4.2%입니다. 1990년대 북한경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결과 북한경제는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이 그림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및 주요 산업 부문별 실질 국내총생산의 추이를 1990년 값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선 실질 국내총생산 추세부터 보겠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 지수는 1990년 100에서 매년 하락하여 1998년 71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결과, 1998년 북한경제 규모는 8년 전의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농림어업이 가장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1997년이 가장 낮았는데, 지수는 82로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경공업의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역시 1997년에 가장 낮았고 그 이후 반등하고 있는데, 지수는 71입니다.

반면 중화학공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낮았던 1998년에는 4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1998년 중화학공업 생산량은 8년 전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업 생산 규모도 1998년에는 8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당시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만큼, 농업 부문의 타격이 가장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는 농업보다 광업이나 제조업 부문에서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줄어들자, 1990년대 북한의 1인당 소득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림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을 유엔에서 추정한 각 연도별 북한 인구로 나누어 구한 1990년대 북한 1인당 소득 추세입니다. 이 역시 1990년 소득을 100으로 놓고 지수화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8년 64로 최저점을 찍은 뒤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1998년 1인당 소득은 1990년의 64%, 그러니까 2/3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북한경제가 얼마나 쇠퇴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990년대 중엽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북한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식량위기 당시 북한의 아사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선행연구를 통해 추정된 아사자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식량 지원 활동을 하던 NGO 단체들을 통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을 탈출한 '식량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의 가족 중 아사자 비율을 추정한 뒤, 이를 북한 전체 인구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량난민'은 주로 어떠한 지역에서 많이 나올까요? 대체로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또 그 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실태를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은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00년 에버 슈타트라는 학자가 북한에서 1946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해 온 인구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1998년 인구와 1998년 북한의 실제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998년 북한의 실제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수백만 명이 아사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자료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수행된 연구가 많았습니다. 기근을 전후한 시기에 인구센서스 자료가 존재했다면 이 둘을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1993년 센서스 자료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다른 국가의 기근 사례 등에 근거해 가정을 세운 뒤, 이를 토대로 추산한 연구가 있습니다. 굿카인드와 웨스트라는 연구자들은 1958년~1961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대기근 당시 사망률 변화 추세를 북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했는데, 1995년과 2000년 사이 104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1998년 국제기구에서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실태 조사결과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간 제약 상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하기 어려운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분석에서는 같은 기간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가 60.5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굿카인드와 웨스트는 이러한 두 개의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기근으로 인한 인구학적 충격 규모가 60만~1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아사자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개선되었습니다. 북한에서 2008년 인구센서스가 실시되어, 이제 기근을 전후한 시기, 즉 1993년과 2008년 실시된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1993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식량 위기가 없었을 경우의 출생 및 사망자 수를 추정하고, 이것과 2008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실제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인구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라 추정 규모에 얼마간의 편차가 존재합니다.

김두섭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1996년~2000년 초과 사망자 수를 33.6만 명으로 추정하였는데, 스푸른버그와 슈베켄디에크 교수는 24만~4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 서울대 박경숙 교수님은 1993년~2008년 사이 초과 사망자 수가 4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초과 사망자 수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망률일 때에 비해 늘어난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망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KDI 이석 박사님은 북한 인구센서스 결과를 이용하되, 왜곡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30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1994년~2008년 초과 사망자 수가 50만~1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30세 이상 여성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이 군대 규모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10대~20대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특히 남성 인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990년대 식량 위기 당시 북한의 아사자 규모를 추정한 여러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3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인식의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추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아사자 규모에 대한 시각차도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초과 사망자가 모두 아사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극심한 기근이 발생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사망하는 인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에는 이러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기근에 노출된 사람들 중,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신체적, 인 지적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러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유아기에 신체와 두뇌 등의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이를 충분히 만회하기는 힘듭니다.

1998년, 그러니까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를 막 지난 시점에 북한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 상태에 대한 국제기구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영양부족,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 키가 매우 작은 아이의 비율이 60%를 상회했습니다. 어린이 다섯 명 중 세 명은 제대로 자라지 못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에 키가 작은 아이의 비율이 높았으니, 오늘날 북한의 20대는 남한의 20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북한 어린이의 만성영양부족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지난 20여 년 사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0주차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이처럼 북한 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림과 그에 따른 질병 노출 등으로 인해 사망했고, 한참 성장해야 할 시기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 하였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가 준 충격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경제의 변 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970년~1980년대 북한의 경제실적이 좋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이 반복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했 습니다.



북한경제가 1970년대 이후 이처럼 성장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일쇼크로 북한의 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물론 전자가 더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970년~1980년대 북한이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모색했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변화를 모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제관리방식 변화의 핵심은 분권화와 자율화였습니다. 분권화와 관련된 조치로는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도입과 연합기업소 체제의 전면 실시에 대해 살펴보았고, 자율화와 관련된 조치로는 독립채산제 강화, 8·3 인민소비품 생산 허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1984년 합영법이 제정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투자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1990년대와 관련해서는 경제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또 그 피해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90년대 경제위기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째는 1960년대 이후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한계였고, 둘째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라 더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이라는 독재자의 사망에 따른 정치적 기강의 악화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1990년대 경제위기 시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중공업과 광업이 가장 크게 충격을 입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은 1990년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998년에는 64에 불과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것은 식량 위기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의 발생이었습니다. 북한 식량 사정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가 위기의 절정이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1995년에는 식량 위기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사자 규모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300만 명 설도 나오긴 했지만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 식량 위기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대략 50~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초과 사망자가 모두 굶어 죽은 것은 아니며, 이 중 일부는 영양상태 악화로 인해 질병에 걸려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주차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경제의 전개 과정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경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갔는지, 또 왜 북한경제는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다가 쇠퇴의 길을 겪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네 번째 강의부터는 2000년대 이후, 2000년경부터 최근까지 북한경제를 몇 가지 핵심 주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 첫 번째 순서로 북한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3**

##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3-1**

###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n the 1970s and 1980s

Hello. I am Hong Jea Hwan and will deliver the lecture series called Past and Present of North Korean Economy. This is the third lecture about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n the previous lecture, we discussed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We examined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y and the economic growth of that time.

Through the last lecture, we learned that North Korea nationalized production means and established 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which is the key characteristic of the socialist economy in the 1950s and 1960s. We also learn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wed rapid growth in the late 1950s, but its growth slowed down significantly in the 1960s.

In this lecture, we will discus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following the previous lectures. First, we will see how North Korea's economy was stagnant in the 1970s and 1980s, and it promoted chang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However, the North Korean economy did not recover despite these changes. In the 1990s, North Korea suffered from a serious economic crisis, known as the North Korean Famine, which caused mass starvation. Then, why did the North Korean Famine occur, and what was its impact? What changes did it bring to the North Korean economy? We will discuss these issues later in the lecture.

In the previous lecture, I mentioned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slowed in the 1960s. The economic growth rate, which exceeded 10% in the late 1950s, fell significantly to 4% in the 1960s.

This slowdown in economic performance is well illustrated by the progress of the first seven-year plan, which began in 1961. The plan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67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but it was completed in 1970. The duration was extended by three years. Why? It's because the performance couldn't meet the target.

This pattern has been repeated since the 1970s. North Korea started a six-year plan in 1971. The program was supposed to be completed in 1976, but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had achieved the goal in August 1975. It was reported that the plan was completed earlier.

However, it is known that the actual performance was not good, unlike the announcement. As supposed, North Korea did not immediately pursue a new plan but had a two-year buffer period until 1977. You can say that the duration of the six-year plan was extended by one year.

How about the next plan? North Korea started the second seven-year plan in 1978 and announced that it was completed in 1984. But the next plan started in 1987, not in 1985. Again, North Korea seems it had a two-year buffer period due to poor performance.



The repeated extension of the plan suggests that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was not good at the tim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North Korea in the 1970s and 1980s, estimated by researchers at the Bank of Korea, also appears to have declined compared to before.

If you look at the graph, as you saw in the last lecture, North Korea's growth rate was estimated to be over 13% in the late 1950s. But it fell to 4.1% in the 1960s, 2.9% in the 1970s, and 2.4% in the 1980s.

In contrast, South Korea achieved high growth in the 1970s. This graph shows the growth rate of South Korea in the 1970s, and you can see that it was over 10% in 6 years out of 10 years. From 1970 to 1979, the average annual real growth rate reached 10.5%. While North Korea maintained low growth, South Korea recorded a high annual growth rate of over 10%. So then, how did the income level of South and North Korea change in the 1970s and 1980s?

In the previous lecture, I mentioned that North Korea's income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until the 1960s. In the second lecture, you saw this graph until the 1970s. Now, it is extended to the 1990s. I used the same data as mentioned in the second lecture.

You can see that South Korea started to outpace North Korea in the early 1970s. Unfortunately, I cannot pinpoint the year because of statistical errors, but the income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 reversed around 1970.

Since then, South Korea has achieved a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failed to overcome the low growth. As a result,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Koreas widened over time. Today, the gap is even larger than this.



Then, why did North Korea suffer from difficulties in growth after the 1970s? First and the biggest factor is the failure to overcome the various problem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many socialist countries tend to achieve impressive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arly days, but soon, face slowed growth and crisis. This is quite common in socialist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the deteriorating economy of North Korea is caused by innate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that are difficult to overcome.

In the last week's lecture, I mentioned the various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y. Do you remember? They were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lack of economic incentives, lack of motivation to make more profit due to soft budget constraints, and departmentalism. These hinder the socialist system from working properly.

The planned economic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due to these problems in North Korea, resulting in sluggish production.

Second, the external growth strategy pursued in the early stage reached its limit. These are what I mentioned in the second lecture while explaining why the growth rate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1960s. The same caused the slow growth in and after the 1970s.

Third, worsene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also hindered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growing. Until the 1960s, North Korea emphasized self-sufficiency and self-reliance while limiting foreign trade to a minimum. It aimed at building an economy that is as self-sufficient as possible.





But North Korea tried to expand economic ties with the West, including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in the 1970s. It moved actively to expand foreign relations, such as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several countries in Europe. Why did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policy change at this point?

First of all, the tension between the East and West was easing at the time. This is called East-West détente. Ping-pong diplo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1971 and President Nixon's visit to Beijing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capitalist camp and the socialist camp.

Ping-pong diplomacy refers to the exchange of table tennis players. China invited the US players to Beijing during the 1971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in Nagoya, and the US players visited China to play a friendly match, greatly improving the US-China relationship.

North Korea was also influenced by this international trend of East-West détente. For your reference, it was also 1972 when the two Koreas signed the July 4 South-North Joint Statement, agreeing to the 3 principles of unification (independence, peace, and national unity), suspension of mutual criticism and armed provocations, exchanges in various fiel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hot-lin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other important reason North Korea reached out to the West was its poor economic performance. As I mentioned, North Korea pursued a self-sufficient economy. However, its economic conditions were not suitable to pursue a self-sufficient economy.



Industrialization requires a lot of machinery, but North Korea's machinery industry was underdeveloped. The level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also low, so adopting outside technology was inevitable. As mentioned, North Korea received large-scale capital and technology aid from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USSR, China, and Eastern Europe when it achieved a high growth rate in the 1950s.

North Korea still emphasized self-sufficiency and self-reliance. But, by this time, North Korea had already experienced the delay of the first seven-year plan by three years. Thus, it may have decided that it needs to be more active in receiving outside support.

North Korea expanded its economic ties with the West, introducing large-scale machinery and plants through loans from Western countries in 1972. It also received long-term loans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The thing is, the first oil crisis struck the world in 1974. This hurt North Korea's exports badly, and it started to have difficulty repaying the loan. This resulted in North Korea's external debt and the situation became increasingly serious. Eventually, North Korea was declared bankrupt by the West in 1986.

Let me summarize.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was worsened due to the innate limitation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overcome this, it reached out to the West, but the first oil crisis hindered it from expanding its economic relations, resulting in economic difficulties.

So far, we have looked a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n the 1970s and 1980s.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changes in how North Korea managed its economy in the 1970s and 1980s.



3-2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ic Management Methods  
in the 1970s and 1980s

Hello again. So far, we have talked abou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in the 1970s and 1980s. Now, let's discuss changes in how North Korea managed its economy in the 1970s and 1980s.

As we saw, the North Korean economy faced a downward trend after the 1960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ust have made efforts to solve this. As you saw earlier, it reached out to the West in the 1970s.

Other measures were also sought to improve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1970s and 1980s. However, given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such attempts seem not successful. Now, we will discuss what changes North Korea sought to revive its economy in the 1970s and 1980s, especially the 1980s, focusing on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e changes in the system were largely in two directions: decentralizing corporate management authority to lower authorities and companies and expanding corporate autonomy. The key was decentralization and more autonomy. In fact, this is common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socialist economy. Let's look into the main changes.

First is decentralization. In 1980, the 'New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The 'New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was to decentralize enterprise management authority from the center to provinces and from top to bottom. This measure considered it difficult to directly control companies from the center as the economy grew larger and relationships between companies became more complex.





A noteworthy change in the decentralization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was the full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business system in 1985. The combined business refers to a single management unit made by incorporating several companies vertically or horizontally and was introduced in most socialist countries.

For example, the OO steelworks integrated business is made by combining OO steelworks (a parent company) with suppliers of raw materials. It seems that this approach was introduced because grouping multiple companies made central management easier. Then, a large part of the central authority was delegated to the integrated business. This is decentralization.

It was in 1974 that the integrated business system was introduced in North Korea. It was introduced first in key industries as a pilot project and then fully introduced in all sectors in 1985. As a result, the number of integrated businesses was 38 in 1983 and over 120 in September 1986.

Now, let's look at measure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corporate autonomy. From the end of 1984, measures were taken to strengthen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llows companies to retain some of their profits and makes them take partial responsibility for a loss, reinforcing the company's financial responsibility.

North Korea introduced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right after the liberation. However, it existed nominally because the state took most of the profits.

In this period, companies became able to reserve some of the profits and use them to expand production, develop technology, and give prizes. In the first lecture, we discussed several measures related to reserving profits in China's economic reforms. A similar attempt was made in North Korea. This is an important change in terms of incentives for businesses.



Another noteworthy change related to expanding corporate autonomy is the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Production Movement' in 1984.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you hear this term,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These refer to daily necessities made using idle raw materials, materials, waste, and by-products in local areas. Simply put, these are necessities of daily life made by using unused materials.

The title includes 'August 3' because it was when the measure was taken. It was named so because Kim Jong-il ordered a campaign to produce daily necessities using waste materials and by-products while touring the light industry product exhibition hall in Pyongyang on August 3, 1984.

When producing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you can use idle raw materials and materials, but cannot use materials from the centralized material supply system. In addition, companies could determine the production items, volume, and sales of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That is, you can sell them in the market. Allowing the production of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is a meaningful change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production outside the planned economy.

Another noteworthy change in the 1980s was the Joint Venture Management Act enacted in 1984. The key is that it allows foreign direct or joint ventures. I already mentioned that North Korea received large-scale loans from the West in the 1970s, but was unable to repay them and faced a foreign debt issue. The Joint Venture Management Act was enact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because introducing foreign loans became impossible because of the debt.

Its enactment reflected North Korea's will to attract investment and advanced technology from the West. The Joint Venture Management Act was groundbreaking because North Korea continuously emphasized self-reliance despite some changes like introducing loans in the 1970s.



Was it successful? No, it wasn't. Countries like France, Austria, Sweden, and Japan showed interest in investing, but most of the investments were made only by members of Jochongnyeon. Jochongnyeon refers to the Pro-North Korea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y did Western countries show interest but not invest? North Korea did not have proper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ports. It still does not. Also, it didn't guarantee foreign companies that they can bring profits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So, there were notable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corporate autonomy, decentralizing economic management authority, and allow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1980s, especially in the mid-1980s. But the changes didn't last long. It cooled down rapidly from 1986.

Why did the situation suddenly change? It was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not by domestic factors. In 1985 and 1986, the Soviet Union and China showed signs of change, not only in economies but also in politic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must have been shocked to see how economic reforms in the USSR and China expanded to political reform and democratization. It seems the leadership thought that improper economic reforms may threaten the system itself.

The top prio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lways been the continuation of its system until now. This put the brakes on reform measures, and the attempted changes fizzled out.

So far, we have discusse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the 1970s and 1980s. After a break,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Famine'.





### 3-3

###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Famine'

Hello again. We discusse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the 1970s and 1980s. Now, let's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Famine' in the 1990s.

As mentioned, the North Korean economy had many problems and was sluggish until the end of the 1980s. Still, the economic system was working to some extent, and the state maintained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the people.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in the 1990s. In the mid-1990s, North Korea faced a severe economic crisis called the "North Korean Famine". North Korea suffered a great famine which was estimated to bring starv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up to 3 million people.

As I mentioned in the last lecture, North Korea's income level was around the middle of the world in the 1970s, just 20 years ago. At that time, North Korea had a higher income level than South Korea. Then, why did its economic system collapse and why did it face such a serious economic crisis that so many people starved to death?

Before examining the economic crisis specifically, let's first look at the background.

The first is the limitations of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I already mentioned this while explaining the causes of poor economic performance in the 1970s and 1980s, so I don't think I need to repeat that.



However, I need to emphasize again that North Korea was aware of such problems, and made some efforts to improve them in the 1980s which did not last. If such efforts had continued, the North Korean economy might not have faced such a serious crisis in the 1990s. Of course,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completely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as North Korea made limited efforts for change.

The second is the huge external shock. The planned economic system reached its limits in the 1980s and rapid changes took place in the socialist countries. This harmed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Soviet Union promoted reforms called 'perestroika' and opening called 'glasnost'. Eastern European countries were influenced by this and promoted democratization, reforms, and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Hungary became the first socialist country in Eastern Europe to introduce a multi-party system and a market economy in 1989. It was followed by many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like Poland and Romania.

North Korea used to depend on these socialist countries for key parts of its economy, including energy and technology until the socialist bloc collapsed. Particularly, it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Soviet Union for aid and trade, but it could not receive support anymore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Another reason North Korea faced an economic crisis in the mid-1990s was the collapse of political discipline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A socialist planned economy cannot operate without a political dictatorship. The dictator's death could be a serious threat to political discipline in such a system. A weakened political discipline may make the planned economic system collapse.



For example, some scholars think the Soviet economy faced a crisis at the end of perestroika because Gorbachev's political liberalization had disrupted the political discipline in the dictatorship.

North Korea's planned economy was maintained by the trust and fear of the people toward the Kim Il-sung regime. Then, Kim Il-sung died in the summer of 1994. Kim Jong-il had been preparing for power succession for a long time, but we could see the planned economic system was not working in many a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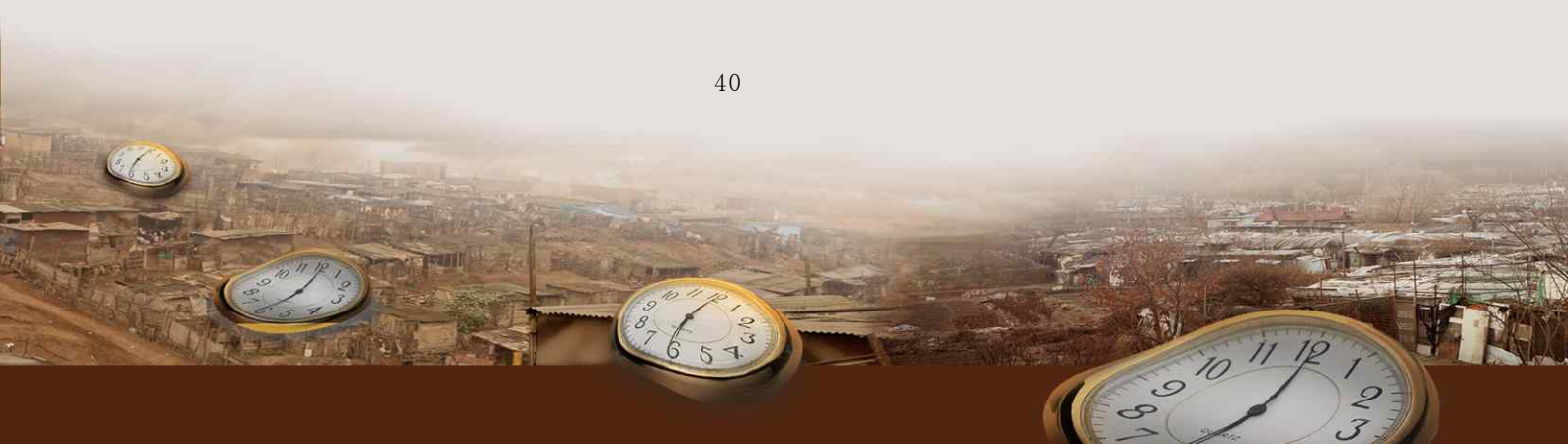
A clear example was the collapse of the food rationing system. North Korea's rationing system collapsed during the food crisis, leaving residents to provide food for themselves. Countless couldn't do that and eventually starved to death.

If the North Korean system had been stable, the rationing system would have been implemented more thoroughly to provide scarce food. But the reality was far from it.

As food production became scarce, cooperative farms hid food supposed to be submitted to the state, and the food procurement and transportation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The bureaucrats were busy taking care of their own region and their share rather than considering the whole country. These were the result of collapsed political discipline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Food was the most serious issue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As mentioned earlier, a huge number of people died from hunger. Given the shock of the food crisis, let's look at why the food crisis became so serious.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started to be worsened in the 1980s. Some events at that time clearly show this.





Firs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ut people's food rations by 10% in the name of patriotism in 1987. It allowed workers to do small-sized farming. It also condoned the illegal sale of agricultural products grown by farmers in the market. As food supplies became scarce, the government started to allow people to secure their own food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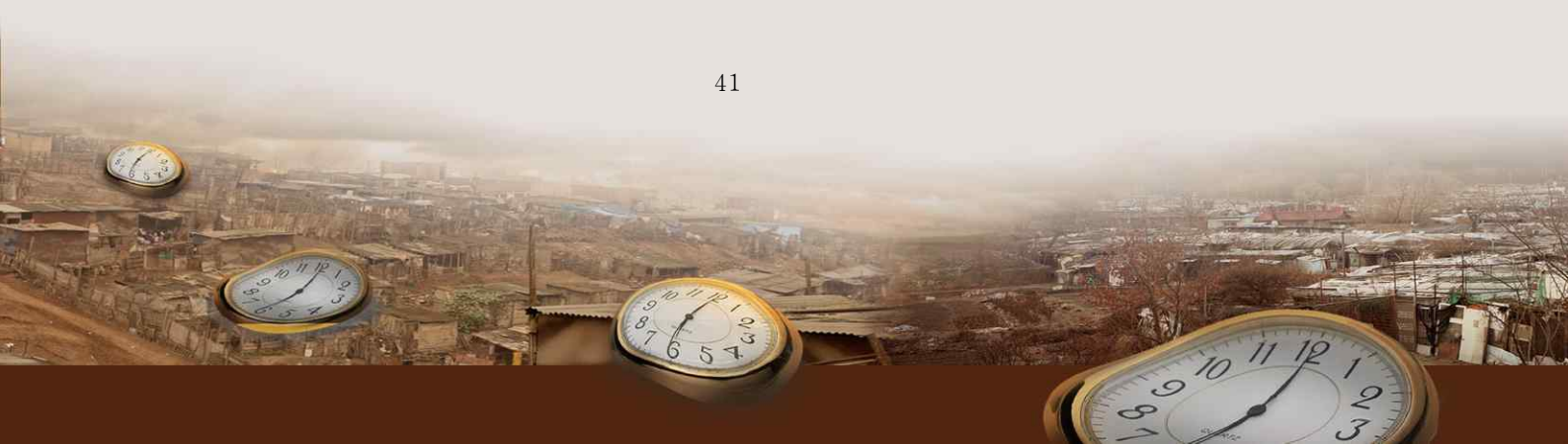
However,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got even worse in the 1990s. North Korea started the 'Eat two meals a day' campaign in 1991. It cut the food ration again by 10% in 1992.

Still, the food crisis intensified in 1994. Food rationing was temporarily suspended in some provinces including Hamgyongnam-do, Hamgyongbuk-do, and Yanggang-do, and some residents in these areas fled across the border to China for food.

Even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id not admit the food crisis officially. It claimed that Western media's reports on the food crisis were evil attempts to tarnish North Korea's image.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hanged its attitude in 1995 probably because the food situation was so bad. North Korea officially admitted its food shortage in May 1995 and requested food aid from South Korea and Japan. As a result, South Korea and Japan provided 450,000 tons of food aid in June 1995, and this fact was announced to North Korean people.

Furthermore, a great flood struck North Korea that summer. North Korea requested large-scale food ai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Things got worse in 1996. Food shortages became serious in almost all regions of North Korea. As a result, a large number of people began moving for food. Some even crossed the border to China for food. There were increasing arguments that North Korea was suffering from massive starvation from that year.

Even in 1997, the situation was di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that provided food to North Korea reported that the food situation was at its worst, and it was claimed that millions of people had already starved to death. North Korea, of course, denied this. I will mention this again, but the claim saying millions died from hunger seems exaggerated.

The peak of the North Korean food crisis was from 1995 to 1997.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seems to have improved little by little through resumed food rations from 1998. It does not mean the food problem was completely resolved.

Although the situation has improved, North Korea must solve its food problem completely. You may have encountered media reports that North Korea is listed as one of the hungriest countries announced annually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will discuss this again in the 8th lecture on North Korean agriculture after the 2000s.

Then, how much did food production shrink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The UN's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estimated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halved in 1995 compared to 1990. Food production continued to remain at a low level until the end of the 1990s.

However, the estimate is highly likely to exaggerate the change in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scale.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did decrease, but such a drastic change is unlikely to occur in a short period.



There is another statistic that estimated North Korean food production at the time. That is an estimate announc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The graph shows the statistics announced by the RDA. You can see that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declined in 1995, but the decline was not as great as FAO's estimates. Although this seems to be closer to reality, I also think that the decrease is somewhat small considering that there was mass starvation in North Korea.

Whichever statistic is closer to reality, it is clear that North Korea suffered from a severe food crisis in the mid-1990s. Then, why did food production decrease in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There are several causes.

The first is the natural disaster. North Korea experienced major floods in 1995 and 1996. In the following year, it experienced a great drought. Especially, the flood in 1995 was so severe that the UN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listed it as one of the top 10 natural disasters over the past 50 years.

Another cause is worsened agricultural production conditions over time. Even though North Korea does not have much arable land, it still promoted food self-sufficiency. The North Korean population was less than 10 million right after the Korean War, but it exceeded 20 million in the 1990s. Therefore, North Korea promoted a policy of converting forests into agricultural land for food self-sufficiency.

This policy resulted in deforestation, making the environment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The fuel shortage also caused reckless logging and deforestation, which made it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Rapidly decreased agricultural inputs in the 1990s also caused a decrease in food produ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agricultural inputs is chemical fertilizers. FAO statistics show that North Korea's chemical fertilizer production sharply decreased between 1994 and 1995.





Why did the production of chemical fertilizers decline so drastically? Several factors affected this, and the main factor was decreased im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This made it difficult to operate the fertilizer production facilities normally.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factor that caused the food crisis in North Korea was the collective farm system. It is not easy to provide a proper incentive to each farmer to encourage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assess individual performance in the collective farm system. Farmers tend to free-ride rather than work hard in this circumstance.

Incentives were given to each farm for total production, but that didn't mean much. Incentives were given for surplus production beyond the target. However, the target was set too high to exceed and the government purchased the surplus at a very low state-set pric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came aware of these issues during the food crisis and introduced a "New Team Management System" in 1996. First, the size of a team, the basic production unit, was reduced from 10-25 people to 5-10 people composed of family and relatives. This was to alleviate the free-riding issue.

It also lowered the production targets given to farms and started to provide surplus products in kind instead of purchasing them at state-set prices. When the surplus was provided in kind, farmers could sell them at a market price much higher than the state-set price, encouraging them to actively engage in production activities. However, it seems that the New Team Management System was fully introduced to cooperative farms.

So far, we looked into the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Famine in terms of the economic crisis and food crisis.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the impact of the North Korean Famine.



### 3-4 Impact of the North Korean Famine

Hello again. So far, we studied the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Famine. Then, how much did the North Korean economy slow down during the famine, and how big was the damage? Let's discuss the impact of the North Korean Famine.

First, let's look at the economic growth rate. The figure shows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from 1990 to 2000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North Korea experienced negative growth for 9 consecutive years from 1990 to 1998 and turned to positive growth in 1999.

North Korea's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was -3.2% from 1990 to 1999 in the 1990s. If you exclude the year 1999 with the positive growth rate, the average rate becomes -4.2% from 1990 to 1998. You can see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seriously bad in the 1990s.

How much did the economy shrink after the negative growth for 9 consecutive years? This graph indexed North Korea's real GDP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real GDP of each major industrial sector, with the 1990 value set at 100.

Now, let's first look at the real GDP. The real GDP index declined annually from 100 in 1990 to 71 in 1998 and has been recovering after that. As a result of long-term negative growth, the North Korean economy shrank to 70% of what it was eight years ago.

Now, let's look at it by indust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howed the least decline. The lowest point is 82 in 1997, but this is not that low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light industry also declined less. The lowest point is 71 in 1997, and the industry has been recovering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sector was hit the hardest. Its lowest point is less than 40 in 1998. North Korea's heavy industry production in 1998 was less than 40% compared to 8 years ago. The production of the mining industry was reduced by almost half in 1998 compared to 8 years ago.

As many starved to death due to famine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you may think that agriculture was hit the hardest. However, as you see,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were hit harder than agriculture.

As production declined,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also declined in the 1990s. This graph shows North Korean per capita income in the 1990s, calculated by dividing North Korea's real GDP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by the North Korean population estimated by the UN. This is also indexed with the 1990 value set at 100.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continued to decline to 64 in 1998 and then recovered slightly. In other words,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in 1998 was only 64%, two-thirds, of that in 1990. You can see how serious the North Korean economic crisis was in the 1990s and how much the North Korean economy declined as a result.

As we learned in the last lecture,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declined significantly after the mid-1990s due to multiple factors, and North Korea had to experience a serious food crisis.

Then, how many starved to death during the North Korean Famine in the 1990s? It's hard to know unless North Korea releases official statistics. We can estimate it by using some data.

Let's check the size of starvation estimated in major preceding studies.





The first one claimed that 3 million people died of starvation. This claim was first made by NGOs involved in food aid at the time. The NGOs made this claim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on 'food refugee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They estimated the starvation death rate of their families and applied it to the entire population of North Korea.

By the way, where these 'food refugees' mostly came from? They are likely to be from the most food-stressed areas and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ose areas. Therefore, survey results of the food refugees are likely to significantly distort reality.

However, an academic study also claimed that 3 million people starved to death. Eberstadt claimed this in 2000 by comparing the estimated population in 1998 calculated using demographic statistics released in North Korea from 1946 to 1987 with the actual population in 1998.

This claim lost its persuasiveness because there was a problem in estimating North Korea's actual population in 1998 even though it's difficult to be explained in detail. Recently, there has been no claim that millions of people died of starvation.

Let's look at the studies after that. In the 2000s, many studies were conducted with certain assumptions due to data limitations. If there was census data around the time of the famine, we could have used both, but we only had 1993 census data.

For example, some studies made assumptions based on famine cases in other countries and then estimated them based on these assumptions. Goodkind and West analyzed by applying the changes in mortality rates during the great famine in China from 1958 to 1961 to North Korea. The analysis estimated that 1.04 million died from hunger between 1995 and 2000.



They also conducted an analysis using the results of a nutritional survey conduc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n North Korean children in 1998. I cannot explain the analysis method in detail because of time constraints. This analysis estimated that 605,000 people starved to death during this period.

Combining the two analyzes, Goodkind and West argued that the demographic impact of the famine would range from 600,000 to 1 million.

We became able to estimate the death toll more accurately after the 2010s. North Korea conducted the population census in 2008, so it became possible to use the census data before and after the famine in 1993 and 2008.

Since 2010, studies have estimated the number of births and deaths assuming that there was no famine using the 1993 census data and compared these estimates with the population in the 2008 census data. As a resul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estimated deaths depending on the study.

Professor Kim Doo-seop estimated the number of deaths between 1996 and 2000 to be 336,000, while professors Spoorenberg and Schwekendiek estimated it to range from 240,000 to 420,000. Professor Park Kyung-soo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stimated the number of excess deaths to be 490,000 between 1993 and 2008.

For your reference, excess deaths mean an increased number of deaths compared to the normal death rate. It is the number of people who died from hunger.

Dr. Lee Seok of the KDI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excess deaths to range from 500,000 to 1.13 million between 1994 and 2008. He used the North Korean census data but analyzed it with a focus on women over the age of 30, which is less likely to be disto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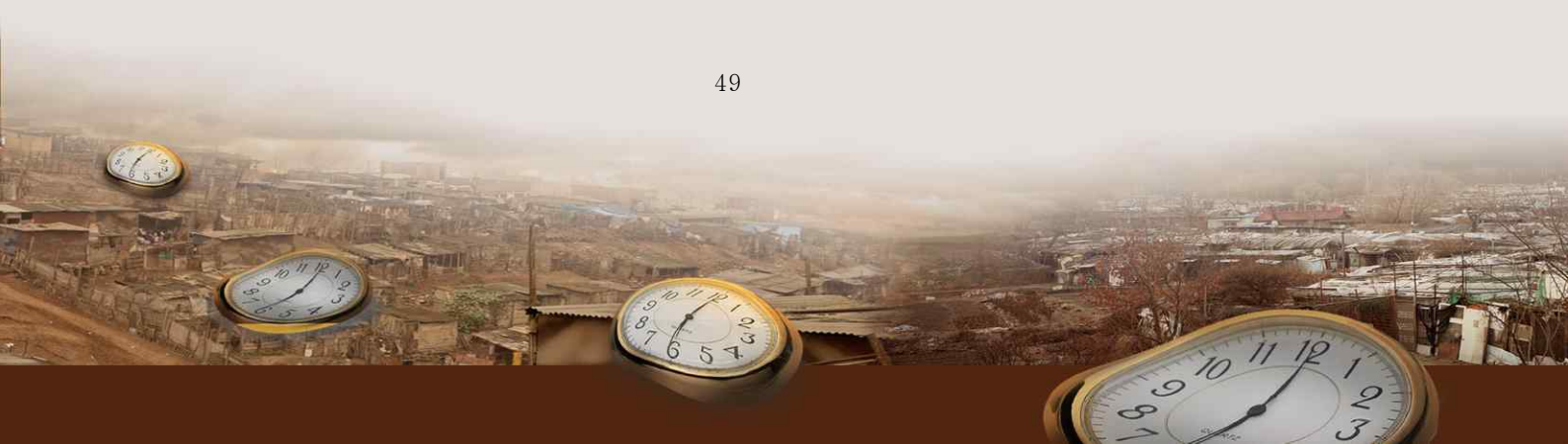
He focused on women over 30 for analysis because North Korea may have distorted the population census results of the male population, especially that of teenagers and 20s, to avoid revealing the military size.

So far, we have looked at several studies that estimated the death toll during the 1990s food crisis in North Korea.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perception, such as claims that the death toll due to famine reached 3 million. After the 2008 population census results became available, the estimation became more systematic and reasonable, greatly narrowing the gap in views on the death toll.

To point out one more in this regard, not all excess deaths were caused by starvation. During extreme famines, some die of starvation, but many die from diseases because inadequate nutrition results in poor health and reduced immunity, making people more susceptible to disease. The death toll due to the famine mentioned above includes these people.

We also need to consider that many of those exposed to famine but survived may be physically and cognitively affected. Young children, especially those in their growing years, are most likely to suffer from th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the body and brain is most active during infancy. If children cannot grow enough during this period, recovering it later is quite difficul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rveyed the nutritional status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5 in 1998, that is right after the peak of the food crisis. Children with chronic malnutrition, children who were shorter than their peers, accounted for over 60%. Three out of five children were poorly developed. Considering many North Korean children were shorter in the late 1990s, today's North Koreans in their 20s are likely to be significantly smaller than South Koreans in their 20s.



For your reference, the chronic malnutrition rate of North Korean children today is about 20%. While still high, it has declin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We will talk about this again in the 10th lecture.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in the 1990s had a serious impact on the lives of North Koreans. Many died from starvation and exposure to disease and did not grow up enough during the growth period.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affected North Korea in many ways. It also brought significant changes to North Korea's planned economic system. We will discuss the details in the 4th lecture.

Let's summarize what we have learned. In this lecture, we discussed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We first confirmed North Korea's poor economic performance in the 1970s and 1980s. The repeated extension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shows this well.

There are two reasons why the North Korean economy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 growth since the 1970s. One was that it could not overcome the innate problems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and the other was that the oil crisis caused North Korea's foreign debt. Between the two, the former wa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Then, we looked at how North Korea sought changes in its economic management method in the 1970s and 1980s. North Korea, like other socialist countries, sought changes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The key changes in economic management were decentralization and expanded autonomy. As for decentralization, it introduced the 'new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and fully implemented the integrated business system. As for autonomy, we looked into reinforcing the 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and permitting the production of August 3 People's Consumer Goods.

The enactment of the Joint Venture Management Act in 1984 was also a noteworthy change. However, there was not much investment because North Korea did not have proper infrastructure and did not guarantee the return of investment profits back to home countries.

Regarding the 1990s, we looked at why the economic crisis occurred and what the damage was. I mentioned three major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The first was the innate limitation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which I repeatedly emphasized concerning the deteriorating economic situation since the 1960s, and the second was that it no longer received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bloc. I also explained that the death of the dictator Kim Il-sung weakened political discipline, resulting in the economic crisis.

The North Korean economy experienced negative growth for nine consecutive years from 1990 to 1998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By industry, we checked that the heavy industry and mining industry suffered the most. Per capita income was only 64 in 1998 when setting the 1990 value at 100.

What was most serious was the mass starvation caused by the food crisis.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had already been showing signs since the late 1980s, and the crisis peaked between 1995 to 1997. Ev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d to admit the food crisis in 1995 and ask for help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death toll due to famine, some claimed that 3 million died without enough logic in the beginning. Recent studies estimate it to be between 500,000 and 1 million. Not all of these excess deaths were caused by starvation, and some died from diseases caused by malnutrition.

In the last and this lecture, we studi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90s. Now, you know how North Korea established the planned economy system and why its economy grew rapidly in the beginning and then went into a decline.

Let me end the lecture here. In the 4th lecture, we will discuss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2000s to the present day, focusing on several key topics. The next lecture will discuss the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3周

## 1970年-1990年代的朝鲜经济

3-1

### 1970年-1980年代朝鲜的经济状况

各位同学，大家好。我是《朝鲜经济的昨天和今天》的主讲人洪制焕。第三次课将围绕“1970-1990年代的朝鲜经济”展开。

上节课我们学习了解放后到20世纪60年代朝鲜经济的情况。主要分析了朝鲜的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形态,以及当时朝鲜的经济增长业绩。由此确认了,朝鲜在20世纪50到60年代,实现了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核心特征——生产资料的国有化和中央集权计划经济构建。而且,朝鲜经济在20世纪50年代后期呈现出快速增长趋势,进入60年代后增长率大幅放缓。

这次讲座继前面介绍的20世纪60年代的内容之后,继续探讨20世纪70年代到90年代朝鲜经济的变化情况。首先明确了20世纪70至80年代朝鲜的经济停滞不前,接下来我们再来分析朝鲜为解决这一问题,在加强独立核算制等经济管理方式的转变。

但是即使摸索出了这种变化,朝鲜经济也没有恢复。进入20世纪90年代后,朝鲜经历了被称为“苦难行军”的百姓大量饿死的严重经济危机。那么为什么会发生苦难行军,苦难行军又带来了哪些冲击呢?还有,苦难行军给朝鲜经济带来了怎样的变化呢?上述问题我们将在课程的后半部分给大家介绍。

前面的课程中提到,进入20世纪60年代以后,朝鲜经济的增长业绩大幅放缓。20世纪50年代后期,经济增长率超过10%,但进入20世纪60年代后大幅下降至4%左右。

这种经济业绩放缓的现象很好地说明了1961年开始的第一个7年计划的进展情况。该计划预期在1967年结束。但实际上该计划于1970年终止。计划期限延长了三年。为什么会那样呢?因为与预期相比,业绩并不理想。





进入20世纪70年代后,这种情况依然反复出现。朝鲜从1971年开始实施6年计划。该计划应该在1976年结束,但1975年8月,朝鲜宣布已达成目标。也就是说,比预期提前实现了计划。

但是与所公布的不同,实际业绩并不理想。朝鲜没有立即推进新的计划,直到1977年为止的2年里一直处于缓冲期。这样看来,6年计划的期限增加了1年。

下一个计划是什么呢?朝鲜从1978年开始实施了第二个七年计划。然后于1984年宣布完成。但是下一个计划不是从1985年,而是从1987年开始的。同样,由于业绩不佳,度过了2年的缓冲期。

像这样反复延长计划期限,暗示了当时朝鲜的经济业绩不振。韩国银行研究推团队估算,20世纪70年代至80年代,朝鲜的经济增长率较之前下降。

从图中可以看出,正如之前讲座中提到的一样,20世纪50年代后期,朝鲜的增长率超过13%。但20世纪60年代降至4.1%,70年代降至2.9%,80年代降至2.4%。

与此相反,20世纪70年代韩国实现了高速增长。图片显示了20世纪70年代韩国的增长率,10年中有6年增长率在10%以上。1970年至1979年,年均实际增长率达到10.5%。与朝鲜维持低增长基调不同,韩国年均增长率超过10%。那么,20世纪70年代至80年代,韩朝的收入差距发生了怎样的变化呢?

在之前的课上曾提到过,到20世纪60年代,朝鲜的收入水平高于韩国。这张是第2周课上曾展示的截止到1970年的图片,现将时间延长到20世纪90年代。使用的资料与第2周讲课时说的一致。

如图所示,20世纪70年代初期,韩国开始领先于朝鲜。因为统计上存在误差,所以很难确定,但可以看出1970年前后韩朝的收入水平发生了逆转即可。

此后,韩国也实现了高水平的经济增长。相反,朝鲜没能摆脱低增长状态。结果是韩朝之间的收入差距随着时间的推移越来越大。如今的(差距)比这个还要大。



那么, 朝鲜经济在20世纪70年代以后增长艰难的原因是什么呢? 首先,最大的因素是未能解决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存在的各种问题。

事实上,社会主义建设初期取得了令人印象深刻的经济业绩,但没过多久增长趋势放缓,进入危机状况,这种现象不仅出现在朝鲜。其他社会主义国家也经常出现。 这表明,解决社会主义计划经济系统存在的问题并不容易,这是朝鲜经济恶化的根本原因。

大家还记得第1周课堂上提到过的,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各种问题吗? 一是资源配置效率低下以及经济诱因,即激励不足;二是预算软约束问题造成的失去努力赚取高额利润的动力;三是机关本位主义导致社会主义制度运转不畅等。

朝鲜也是由于这些问题造成计划经济体系无法正常运作,因此生产疲软。

第二,社会主义计划经济初期追求的外延增长战略已经达到了极限。该部分内容在第2周说明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率大幅放缓的原因时已经提到。 也同样适用于(说明) 20世纪70年代以后的低增长。

第三,对外经济环境恶化也是朝鲜经济增长受阻的原因。直到20世纪60年代,朝鲜一直强调经济独立、自力更生,将对外贸易限制在最小规模。 其目标是尽可能构建自给自足的经济。

但是进入20世纪70年代后,朝鲜试图扩大与法国、德国、英国等西方国家的经济关系。为扩大对外关系而积极行动,比如与欧洲各国建立邦交关系等。 这一时期朝鲜的对外经济政策为什么会改变呢?

首先,当时东西方阵营之间的紧张局面出现缓和。这叫东西方缓和。 1971年,因美中之间进行的乒乓外交和尼克松总统访问北京等原因,资本主义阵营和社会主义阵营的关系得到了改善。

乒乓外交是指1971年参加名古屋世乒赛的中国代表团邀请美国代表团访问北京,美国代表团访问中国进行友谊赛,两国关系大为好转的事件。



可以说朝鲜也受到了东西方缓和这一国际潮流的影响。作为参考,韩朝双方发表的《7·4共同声明》也是1972年的事情,其内容包括自主、和平、民族大团结的和平统一三原则,停止相互中伤、诽谤和武装挑衅,实施多方面交流,首尔-平壤常设直通电话等。

朝鲜向西方国家求助的另一个重要原因是经济业绩不佳。正如前面所说,朝鲜一直追求经济独立。但是当时朝鲜经济不具备追求经济独立的适当条件。

要想实现产业化,需要很多机器,但朝鲜机械工业落后。另外,产业技术水平也很低,不得不从外部引进技术。前面提过,实际上朝鲜在20世纪50年代实现高增长率时,从苏联、中国、东欧等社会主义国家获得大规模的资本和技术援助。

尽管如此,朝鲜一直强调经济独立、自力更生。但是这个时期,第一个7年计划已经延长了3年。因此可以判断,有必要更加积极地接受来自外部的援助。

随着与西方国家经济关系的扩大,朝鲜从1972年开始以贷款等形式从西方国家大规模引进机械、整套设备等。也开始从国际金融机构获得长期贷款。

但是1974年出现了问题。发生了石油危机。因此,朝鲜的出口受到打击,朝鲜在外债上遇到困难。结果是朝鲜的对外负债发生了问题,并且情况越来越严重。最终,朝鲜于1986年被西方国家宣告破产。

综上所述,朝鲜由于社会主义计划经济系统的局限导致经济状况恶化,为了克服这一困难向西方国家求助,但恰巧发生的石油危机造成扩大对外经济关系的尝试失败,未能避免经济恶化。

本节课我们学习了20世纪70到80年代朝鲜的经济状况。下一节课我们将探讨20世纪70到80年代朝鲜经济管理方式的变化。





3-2

1970년-1980년대朝鲜经济管理方式的变化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20世纪70到80年代朝鲜的经济状况。本节课我们将探讨20世纪70到80年代朝鲜经济管理方式的变化。

正如上一节课所看到的一样,从20世纪60年代开始,朝鲜的经济增长率呈下降趋势。朝鲜当局为了解决这些问题做出了努力。正如大家之前所看到的,进入20世纪70年代后,向西方国家求助也是其中的一环。

除此之外,20世纪70年代至80年代朝鲜还探索了多种改善经济状况的方案。但是,从20世纪90年代遭遇经济危机的情况来看,可以说这些尝试并没有取得大的成果。在这里,我们将以经济管理方式为中心,分析20世纪70年代至80年代,特别是80年代,朝鲜为挽救经济而寻求了怎样的变化。

经济管理体系出现的变化,从大的方面来看,是朝着将集中在中央的企业管理权限分散到基层单位和企业,扩大企业自主的方向发展。即核心是分权化和自主化。其实可以说,这是社会主义国家经济改革过程中的普遍现象。那么我们来看一下主要变化。

首先来看一下有关分权化的相关措施。1980年引入“新型工业管理体系”。“新型工业管理体系”的核心是将企业管理权限从中央向地方、从上到下分散。这是随着经济规模的扩大,企业之间的关系也越来越复杂,考虑到中央很难直接控制企业而采取的措施。

从1985年开始全面引进联合企业体制,可以说这是有关经济管理体系分权化的令人瞩目的变化。联合企业是将多个企业垂直或水平合并成一个经营单位,是大多数社会主义国家引进的制度。

例如, OO冶铁联合企业是以OO冶铁为母体企业,合并向该企业提供原料的企业的方式。如果将多个企业捆绑在一起的话,便于中央管理,因此引进了这种方式。这样一来,中央的很大一部分权力都交给了联合企业。换句话说就是实现了分权化。

朝鲜是在1974年引入了联合企业制度。以基干产业为中心试点引进后,从1985年开始全面引进到整个产业部门,联合企业从1983年时的38家发展到1986年9月的120余家。





下面来看一下扩大企业自主性的相关措施。首先,从1984年底开始,采取了加强独立核算制的措施。独立核算制允许企业保留部分利润,在发生亏损时对其部分负责,可以说是一种强化企业财务责任的措施。

朝鲜解放后立即引进了独立核算制。但是,从国家拿走大部分利润这一点来看,独立核算制只是名义上存在。

但是进入这个时期后,企业保留了部分利润,可以用于扩大生产、技术开发、奖金等。在第1周的讲座中提到过中国的改革开放,并介绍了有关利润保留的一系列措施,朝鲜也进行了类似的尝试。可以说这是企业激励方面的重要变化。

1984年允许生产“八三人民消费品”,也是企业扩大自主性方面的一个值得注意的变化。“八三人民消费品”一词大家可能是第一次听说。这是指利用地方的闲置原料或材料、废弃物、副产品等制作的生活必需品。简单来说,是利用闲置物品制作生活必需品。

八·三这个名称与采取这一措施的时间有关。1984年8月3日,金正日视察平壤轻工业产品展厅时指示,开展利用废材料或副产品生产生活必需品的运动,因此得名。

允许使用闲置原料或材料等,所以生产八·三人民消费品时,不能使用通过集中物资供应体系获得的物资。八·三人民消费品的生产品种、产量、处置方式可以由企业来决定。换句话说,八·三人民消费品可以在市场上销售。从正式承认计划经济领域之外的生产来看,允许生产八·三人民消费品可以说是意义非凡的变化。

20世纪80年代出现的变化中,另一个值得注意的是1984年制定的合营法。合营法的核心是允许外国人直接投资或合作投资。之前提到过,在20世纪70年代,朝鲜从西方国家获得大量贷款,但由于无法偿还,因此面临外债问题。由于外债问题无法获得贷款,因此制定合营法作为应对方案。

合营法的制定表明了从西方国家招商引资以及引进先进技术的意志。虽然20世纪70年代以后出现了获取贷款等变化,但是考虑到朝鲜基本上一一直强调自力更生,制定合营法可以说是划时代的事件。



那么,有成效吗?从结论来看的话,成效不佳。 法国、奥地利、瑞典、日本等地对投资表现出了兴趣。 但是大部分投资都是来自朝总联的同胞们。 朝总联是指定居日本的亲朝派在日同胞团体,即在日朝鲜人总联合会。

西方国家为什么只关注却没有投资呢?虽然现在也一样,但当时道路或港口等基础设施不完善,而且企业将投资收益带回国内时得不到充分保障是原因所在。

像这样,进入20世纪80年代,特别是20世纪80年代中期,强化企业的自主性,分散经济管理权限,允许外部投资等朝鲜经济管理体系出现了值得注意的变化。但是这种变化并没有持续多久。 因为从1986年开始,这种变化迅速冷却下来。

为什么情况突然发生了巨变呢?比起国内因素,看来是受国际形势变化的影响。 1985年和1986年,苏联及中国不仅在经济方面,在政治方面也出现了变化的征兆。

朝鲜领导层看到苏联和中国的经济改革扩大到政治改革和民主化的情况后,十分震惊。而且,似乎认为经济改革推进不当的话,体制可能会受到威胁。

朝鲜政权一直把维持体制放在首位,现在也是如此。这样一来,改革措施受阻,之前尝试的变化不了了之。

本节课我们学习了20世纪70至80年代朝鲜经济管理方式的变化。下一节课我们将探讨“苦难行军”发生的背景。



### 3-3 “苦难行军”发生的背景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20世纪70至80年代朝鲜经济管理方式的变化。本节课我们将探讨20世纪90年代“苦难行军”发生的背景。

正如之前所看到的,到20世纪80年代末,朝鲜经济存在很多问题,持续低迷。但是经济系统还是保持一定程度的运转,国家保障了居民的最低生活水平。

但进入90年代以后,情况发生了变化。20世纪90年代中期,朝鲜遭遇了被称为“苦难行军”的严重经济危机。后续课程中也会提到,朝鲜在这个时期经历了少则数十万人,多则300万人被饿死的大饥荒。

正如第二周的讲座中所说的那样,朝鲜在20多年前的1970年左右还是收入处于世界中等水平的国家。而且当时朝鲜的收入水平高于韩国。这样的朝鲜为什么会经济系统崩溃,面临许多人被饿死的严重经济危机呢?

在了解经济危机的具体情况之前,首先来看一下发生经济危机的背景。

一是朝鲜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存在的局限性。关于这个问题,我们在分析20世纪70年代至80年代经济业绩不振的原因时已经讲过,这里不做赘述。

但是有必要再次强调,朝鲜认识到需要改善这些问题,而且进入20世纪80年代后,虽然为改善做出了一些努力,但未能持续下去。如果这种努力持续下去的话,20世纪90年代朝鲜经济可能不会面临如此严重的困难。当然,朝鲜做出的努力越是有限,就越难完全克服经济困难。

第二个可以想到的原因是外部冲击很大。20世纪80年代后期,社会主义国家的计划经济体制遇到了瓶颈,这些国家出现了急剧的变化。这对朝鲜经济产生了负面影响。

苏联推进了被称为“新思维”的改革和“公开性”的开放。东欧国家也受其影响,推进了向民主化、改革、市场经济的过渡。





结果,1989年匈牙利作为东欧社会主义国家首次引入多党制和市场经济,转换了体制。此后,波兰、罗马尼亚等东欧社会主义国家也陆续转制。

朝鲜在社会主义圈没落之前,能源、技术等经济的核心部分一直依赖于社会主义国家。其中相当一部分是依赖苏联的对朝援助和贸易。但是随着社会主义圈的崩溃,再得不到苏联的支援了。

20世纪90年代中期,朝鲜面临经济危机的另一个原因是金日成逝世后政治纲纪的紊乱。

社会主义计划经济如果没有政治独裁的支持就很难运行。在这些体系中,独裁者的遗训可能成为维持政治纲纪的严重威胁。而且,政治纲纪涣散可能导致计划经济体系崩溃。

例如,有学者认为苏联在新思维改革末期遭遇经济危机,是因为戈尔巴乔夫推行的政治自由化政策导致独裁体制的政治纲纪崩溃的结果。

可以说朝鲜的计划经济体制也是依靠朝鲜人民对金日成政权的信任和恐惧得以维持的。在这种情况下,1994年夏天金日成去世。虽然金正日作为接班人在权力继承上准备了很长时间,但从各个方面来看,计划经济体制出现了运转不畅的局面。

粮食配给制度的崩溃就是一个明显的例子。粮食危机时,朝鲜的粮食配给制崩溃,居民们不得不自己筹措粮食。而许多无法克服这种情况的人最终饿死。

如果朝鲜体制稳定的话,粮食越是短缺,供应制就越需要严格执行。但现实并非如此。

粮食产量不足,集体农场藏匿了该上缴给国家的粮食,粮食收购和运输体系也未能正常运转。比起整个国家,官僚们考虑更多的是各自的地区以及谋取个人利益。这被视为是金日成去世后朝鲜的政治纲纪松懈的结果。

20世纪90年代经济危机时,粮食问题尤为严重。正如前面所说,发生了大规模的饿殍。粮食短缺带来了很大的冲击,那么一起来分析一下粮食问题如此严重的原因。





朝鲜的粮食情况从20世纪80年代开始恶化。当时出现的一些现象很好地说明了这一点。

首先,1987年朝鲜当局以爱国米的名义,将居民们的粮食分配削减了10%。另外,允许劳动者耕种小菜园。并对农民在集贸市场非法销售种植的农产品的行为给予了默许。因粮食供应不足,容许居民不依赖供应,而是靠自己努力来确保口粮。

但是进入20世纪90年代后,朝鲜的粮食情况更加恶化。朝鲜当局从1991年开始开展了“一天吃两顿饭”的运动。1992年,粮食供应又减少了10%。

但进入1994年,粮食短缺进一步加剧。咸镜南道、咸镜北道、两江道等部分地区的粮食供应暂时中断,该地区部分居民为了寻找粮食越境逃往中国等地。

尽管如此,朝鲜当局并没有正式承认粮食短缺。对西方媒体的粮食短缺的报道,只是谴责其旨在诋毁朝鲜形象。

但是进入1995年以后,朝鲜当局改变了态度。可能是因为粮食情况更糟糕。1995年5月,朝鲜正式承认粮食短缺,向韩国和日本请求粮食援助。因此,韩国和日本在同年6月实施了45万吨粮食援助,也向朝鲜居民公布了这一事实。

但是同年夏天还发生了大洪水。对此,朝鲜还向联合国等国际社会请求大规模粮食支援。

1996年情况进一步恶化。当时朝鲜几乎全境都出现了粮食严重短缺。因此,居民开始大规模迁移寻找粮食。其中一部分人甚至为了寻找粮食越境前往中国等地。而且有观点认为从这一年起,朝鲜正在发生一场严重的饥饿危机。

1997年的情况也很严重。向朝鲜提供粮食援助的国际组织和NGO组织出具了朝鲜的粮食情况处于最恶劣状态的报告,也有人主张朝鲜已经有数百万居民饿死。当然,朝鲜对此予以否认。后面也会提到,这些声称数百万人被饿死的观点似乎有些夸张。



1995年到1997年是朝鲜粮食危机的高峰期。从1998年开始，粮食供应开始部分重启，朝鲜的粮食情况逐渐好转。当然，粮食问题还没有完全解决。

虽然比之前有所好转，但是朝鲜至今还没有完全解决粮食问题。大家可能会在媒体报道中看到国际组织每年公布的粮食短缺国家中，朝鲜也包括在内。对此，我们会在第8周21世纪以后朝鲜农业的讲座中进一步了解。

那么20世纪90年代经济危机时，粮食生产规模减少了多少呢？FAO，即联合国粮食及农业组织估算，1995年朝鲜粮食作物的产量比1990年减少了一半。直到20世纪90年代末，粮食作物生产规模一直停留在如此低的水平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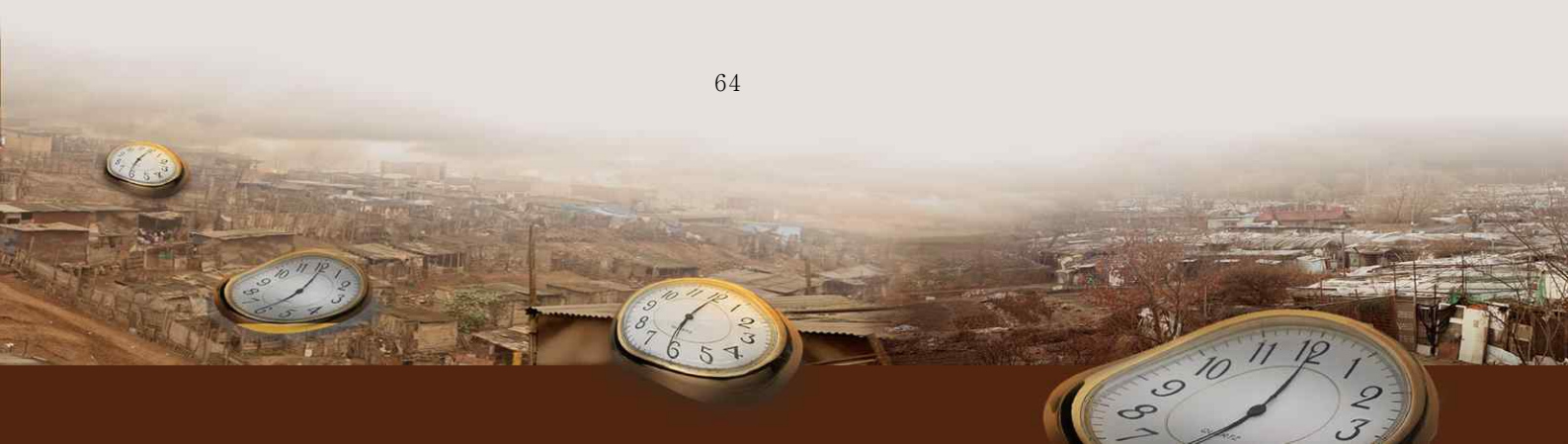
但是这很有可能是在夸大朝鲜粮食生产规模的变化幅度。原因在于朝鲜的粮食产量确实降低了，但很难在短期内出现如此急剧的变化。

当时还有一个估算朝鲜粮食作物产量的统计。这是韩国农村振兴厅公布的估算值。图片是农村振兴厅公布的统计结果。从统计结果来看，虽然1995年朝鲜的粮食产量有所降低，但降幅没有FAO统计的那么大。虽然该统计看起来更接近现实，但考虑到朝鲜出现了不少饿殍，也有人认为减幅是不是太小了。

不管哪一方的统计接近现实，90年代中叶朝鲜确实经历了严重的粮食短缺。那么这一时期朝鲜粮食产量降低的原因是什么呢？可以看作是几个因素综合作用的结果。

首先是自然灾害。1995年和1996年朝鲜发生了大洪水。并在第二年遭遇了大旱，即严重的干旱。特别是1995年的大洪水被联合国世界气象组织选为过去50年间发生的全世界10大自然灾害之一，朝鲜损失惨重。

农业生产条件长期持续恶化也是原因之一。朝鲜是一个耕地不足的国家。尽管如此，朝鲜一直在推进粮食自给自足。朝鲜战争结束时朝鲜人口不到1000万名，但到了20世纪90年代，人口超过2000万名。因此，为了粮食自给，朝鲜推进了变山林为耕地的政策。



但是这样的政策会破坏森林,容易引发自然灾害。再加上燃料不足,无节制砍伐木材用于供暖和炊事的现象广泛存在,从而导致森林被毁,易引发自然灾害。

此外,进入20世纪90年代以来,农业投入品供应的迅速减少也可以看作是粮食减产的主要原因。农业投入品中最重要的还是化肥。但是从FAO的统计来看,1994年至1995年朝鲜的化肥产量急剧减少。

化肥产量为什么会急剧下降呢?看来是多种因素作用的结果,最主要的原因是社会主义国家崩溃导致原油和石油产品进口减少。这就使得肥料生产难以正常运转。

但可以说,集体农场体制是引发朝鲜粮食危机的根本因素。集体农场体制下,很难为积极参加生产活动的农民个人提供适当的奖励。因为很难对每个农场工人的成果进行评估。在这种情况下,农场工人更倾向于搭便车,而不是努力工作。

虽然会对整个农场的生产给予奖励。可是这并没有太大的意义。虽然会对超额产量给予奖励,但目标产量过高超额生产难以实现,即使超额完成,国家也会以很低的价格收购。

朝鲜当局在粮食紧缺时也意识到了这些问题,于是在1996年引入了“新的分组管理制”。首先,将基本生产单位的分组规模从10人-25人,减少到由家人、亲戚组建的5人-10人。这是为了缓解搭便车的问题。

另外,还降低了农场的目标产量,并且以实物支付超额生产的部分,而不是国家定价收购。因为以实物支付的话,农民可以将实物以远超国家定价的市场价格销售,这有助于农场工人更加努力地参与生产活动。但是当时“新的分组管理制”并没有被充分引入到集体农场。

本节课从经济危机和粮食危机两方面分析了“苦难行军”发生的背景。下一节课我们将继续学习“苦难行军”给朝鲜带来的冲击。





3-4

“苦难行军”的冲击

各位同学们大家好。上一节课我们学习了苦难行军的背景。那么经过苦难行军，朝鲜经济恶化到什么程度，损失规模又如何呢？本节课我们继续学习苦难行军带来的冲击。

首先来看一下经济增长率。该图显示的是韩国银行推算的1990年至2000年朝鲜经济增长率趋势。从图上可以看出，朝鲜1990年到1998年连续9年出现负增长，1999年转为正增长。

20世纪90年代，即1990年到1999年，朝鲜的年均经济增长率为-3.2%。除1999年实现正增长外，从1990年到1998年为-4.2%。可以确认的是，20世纪90年代朝鲜经济严重恶化。

那么，连续9年的负增长，朝鲜经济萎缩了多少呢？该图显示的是将韩国银行估算的朝鲜实际国内生产总值及各主要产业部门实际国内生产总值的趋势，以1990年的价格为100进行指数化后的情况。

首先来看一下实际国内生产总值的趋势。实际国内生产总值指数从1990年的100逐年下降，1998年下降到71之后正在恢复。长期负增长的结果是1998年朝鲜经济规模减少到了8年前的70%。

接下来从产业类别来看。首先，农林渔业的减幅最小。1997年最低，指数为82，与其他行业相比并不低。其次是轻工业的减幅较小。也是1997年最低，此后一直反弹，指数为71。

而重化工业部门受到的打击最大。1998年时最低，还不到40。朝鲜1998年的重化工业产量还不到8年前的40%。1998年的矿业生产规模也比8年前缩减了近一半。

20世纪90年代朝鲜经济危机时，很多人因为饥荒而死，农业部门受到的打击最大。但是，如大家所见，实际上矿业和制造业领域受到的打击比农业更大。



20世纪90年代朝鲜的人均收入也随着生产的缩减而降低。图片显示的是韩国银行估算的朝鲜实际国内生产总值除以联合国估算的各年度朝鲜人口后,得出的20世纪90年代朝鲜人均收入趋势。这同样是将1990年的收入设为100,进行指数化后得出的结果。

从图中可以看出,朝鲜的人均收入持续下滑,1998年达到最低点64后再次上升。换句话说,朝鲜1998年的人均收入只有1990年的64%,也就是2/3的水平。这再次确认了20世纪90年代朝鲜经济危机的严重性,以及朝鲜经济的衰退程度。

另一方面,正如上一节课所说,在多种因素的综合作用下,20世纪90年代中叶以后朝鲜的粮食生产大幅减少,朝鲜经历了严重的粮食危机。

那么20世纪90年代粮食危机时,朝鲜的饿死者规模有多大呢?除非朝鲜当局正式公布统计结果,否则很难准确掌握。只能利用有限的资料进行推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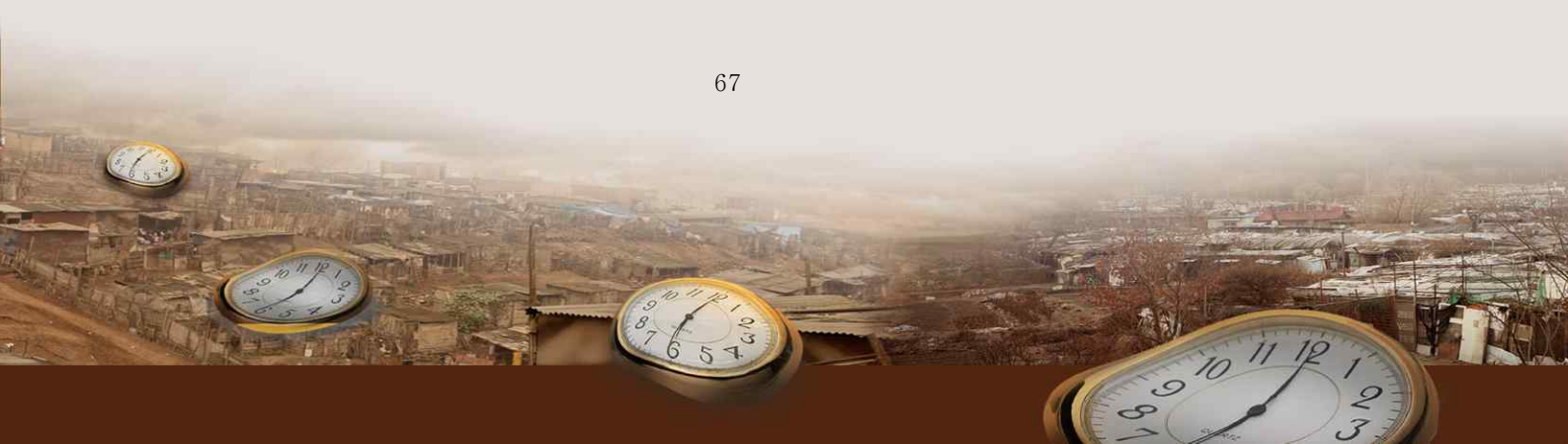
现在我们来了解一下主要先行研究估算的饿死者人数。

首先看到的观点是饿死300万人。这些观点最初是通过当时从事粮食援助活动的非政府组织提出的。这些组织以逃离朝鲜的“粮食难民”为对象开展问卷调查,在问卷结果的基础上提出了这样的观点。估算他们的家人中饿死者的比率后,将其适用于朝鲜总人口。

但是“粮食难民”主要来自哪些地区呢?很有可能来自粮食问题最严重的地区,以及该地区的弱势群体。因此,以这一群体为对象的问卷调查结果很可能严重歪曲了实际情况。

但是,学术研究也曾提出过饿死300万人的观点。2000年,一位名叫埃伯施塔特的学者利用朝鲜1946年到1987年发表的人口统计估算出朝鲜1998年的人口,采用估算人口与实际人口比较的方式判断得出了这一结果。

虽然很难详细解释,但可以确定的是估算1998年朝鲜实际人口的方式存在问题,因此这一观点也失去了说服力。最近,饿死数百万人的观点已没人再提。



我们再来看一下之后的研究。21世纪,由于资料限制,许多研究都是建立在假设之上。如果有饥荒时期人口普查的资料,就可以利用这两者,但当时只有1993年的普查资料。

例如,有些研究是根据其他国家以往的饥荒案例等建立假设,在此基础上进行推算。Goodkind和West两位学者将中国1958年至1961年大饥荒的死亡率变化趋势应用到朝鲜,对比分析后估算出:1995年至2000年,有104万人死于饥荒。

与此同时,他们还利用1998年国际组织对朝鲜儿童实施的营养状况的调查结果进行数据分析。由于时间有限很难详细介绍分析方法,仅从分析的结果来看是,同期死于饥荒的人数为60.5万人。

结合这两个分析结果, Goodkind和West认为饥荒对人口的冲击达到60万至100万人。

2010年代以后,饿死人数的估算依据得到进一步完善。朝鲜于2008年实施了人口普查,现在可以利用饥荒前后时期,即1993年和2008年实施的人口普查资料。

因此,2010年以后,利用1993年的普查资料估算没有粮食危机时的出生及死亡人数,并将其与2008年普查资料显示的实际人口进行比较,进而推算人口损失规模的研究越来越多。然而,由于研究的不同,估算的规模也存在一些偏差。

金斗燮教授估算1996年至2000年的超额死亡人数为33.6万人,斯普伦伯格和施韦肯迪克教授估算的是24万至42万人。另外,首尔大学朴庆淑教授估算,1993年至2008年间的超额死亡人数达49万人。这里的超额死亡人数是指与正常死亡率相比增加的死亡人数。可以看作是饥荒时期超出平日的死亡人数。

KDI李硕博士利用朝鲜人口普查结果,以误差较小的30岁以上女性为研究对象,估算出1994年至2008年的超额死亡人数为50万-113万人。

该研究只选取30岁以上女性为研究对象,是考虑到朝鲜为了不暴露军队规模,有可能瞒报10-20多岁,特别是男性的人口普查结果。





到现在为止,我们了解了20世纪90年代粮食危机时,估算朝鲜饿死者人数的多项研究。研究初期,有观点认为饥荒造成的死亡人数达300万人等,认知差异很大。但是,2008年可以利用人口普查结果后,实现了更加系统、合理的估算方式,对饿死者人数的分歧也大幅缩小。

强调一点,超额死亡者并非都是饿死的人。如果发生严重的饥荒,有些人会饿死,也有很多人因为不能正常摄入营养导致健康状况恶化、免疫力下降,最终染病死亡。前面提到的饥荒死亡人员中也包括这类人。

另一个值得思考的是,受饥荒影响但没有死亡的人群中,很多人的身体和认知方面受到伤害。特别是处于生长期的儿童受到这种伤害的可能性更大。因为婴幼儿时期身体和大脑等发育最为活跃。如果这个时期不能充分发育的话,以后很难挽回。

1998年,刚刚渡过粮食危机最严重的时期,国际组织对朝鲜5岁以下儿童的营养状况进行了调查。慢性营养不良,也就是说,身高比同龄人矮的孩子超过60%。每5名儿童中就有3名身高发育不正常。像这样,20世纪90年代后期,矮个子的孩子比率很高,如今对比朝鲜两国二十几岁的人群的话,很有可能相当矮小。

作为参考,如今朝鲜儿童的慢性营养不良比率约为20%。虽然依旧很高,但过去二十多年来下降了很多。关于这一点,在第10周的讲座中还将继续学习。

20世纪90年代朝鲜的经济危机极大地影响了朝鲜居民的生活。很多人因饥饿和由此引发的疾病等死亡,或是在成长的黄金期没能充分发育。

20世纪90年代朝鲜经济危机带来的冲击不止于此。朝鲜的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也发生了巨大变化。具体内容将在第4周的讲座中学习。

梳理一下学习的内容。本节课我们分析了20世纪70年代到90年代朝鲜经济的变化情况。首先确认了朝鲜20世纪70年代至80年代的经济业绩不佳。朝鲜经济开发计划反复延长的现象则充分说明了这一点。



20세기70年代以后,朝鲜经济增长受限的原因大致有两点。一是未能克服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存在的各种问题,二是石油危机导致朝鲜对外负债。二者当中前者是根本问题。

接下来分析了20世纪70到80年代朝鲜如何寻求经济管理方式的变化。随着经济困难的增加,朝鲜也像其他社会主义国家一样寻求变化。

经济管理方式转变的核心是分权化和自主化。关于分权措施,我们分析了“新型工业管理体系”的引进以及联合企业体制的全面实施,关于自主化措施,我们从加强独立核算制、允许生产八·三人民消费品等两方面展开。

与此同时,1984年制定的合营法也是值得关注的变化。但是也确认了朝鲜因基础设施不完善,无法保障投资收益顺利带回本国等因素,因此没能获得太多投资。

我们又分析了20世纪90年代为什么会发生经济危机,以及其损失等。20世纪90年代经济危机产生的原因大致说了三点。

一是20世纪60年代以后经济状况恶化方面,我们一直强调的是社会主义计划经济系统的局限,二是社会主义圈的没落,导致无法得到苏联的支援。最后,随着独裁者金日成的去世,政治纲纪涣散,最终引发经济危机。

20世纪90年代,由这些因素引发经济危机时,朝鲜经济从1990年到1998年连续9年负增长。从各产业来看,重工业和矿业受到的冲击最大。另外还提到,1990年的人均收入设为100的话,1998年仅为64。

但最为严重的是粮食危机造成大规模人群被饿死。朝鲜的粮食问题从20世纪80年代后期就开始出现恶化的征兆,1995年到1997年达到顶峰。朝鲜当局在1995年也承认了粮食危机,不得不向国际组织寻求援助。

对于饿死者的人数,虽然初期出现了300万人的说法,但依据不足,而且从最近开展的研究来看,粮食危机造成的死亡人数大约为50-100万人。并且还提到,这些超额死亡者并非全部都是饿死,其中一部分可能是营养不良引发疾病而死。



通过第2周的讲座和这次讲座,我们大略分析了解放后到20世纪90年代朝鲜经济的发展历程。明确了朝鲜经济发展经过怎样的过程才形成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以及朝鲜经济为什么在初期快速成长后又陷入衰退等。

本次讲座到此结束,从第四节讲座开始,我们将围绕21世纪以后,即2000年到最近的几个核心问题,继续探究朝鲜经济。下一节课首先讨论朝鲜推行的经济改革。那么下节课见。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역전된 것은 언제인가?

5분

- ① 1960년경
- ② 1970년경
- ③ 1980년경
- ④ 1990년경

**정답** ②

**해설**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에 비해 높았으나,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 남한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대략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역전되었다.

### 02 1970년대 들어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바뀐 원인은?(2가지)

5분

- ① 동서 데탕트
- ② 경제실적의 부진
- ③ 오일쇼크
- ④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정답** ①, ②

**해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방세계와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경제실적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03** 1980년대 북한에서 나타난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양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5분

- ① ‘새로운 공업관리체계’의 도입
- ② 독립채산제의 강화
- ③ ‘8·3 인민소비품’ 생산 허용
- ④ 연합기업소 해체

**정답** ④

**해설** 1974년 도입된 연합기업소 제도는 기간산업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1985년부터 전 산업 부문에 전면 도입되었다. 그 결과 1983년까지 38개이던 연합기업소는 1986년 9월에는 120개를 넘어서게 되었다.

**04** 1990년대 북한이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5분

- ① 화학비료 생산량의 급감
- ② 집단농장 체제
- ③ 자연재해
- ④ 산림훼손

**정답** ②

**해설** 집단농장 체제에서는 농민 개개인이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여, 농장원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것이 1990년대 북한이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05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300만 명 아사설’은 오늘날에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 ② 식량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③ 북한에서 2008년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이후 아사자 규모 파악이 보다 용이해졌다.
- ④ 식량위기 당시 초과 사망자는 모두 아사자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초과 사망자란 정상적인 사망률일 때에 비해 늘어난 사망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식량 위기 당시 아사자 이외에도 식량 부족에 따른 영양상태 저하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어 사망한 인원도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 주제

1990년대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원인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120분)

## 참고

1990년대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원인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 북한을 지원해 왔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1980년대 후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지원이 중단된 점, 김일성 사망 이후 나타난 정치적 기강의 붕괴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도서

- 김석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한울아카데미, 2014.
-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 4~5권, 인물과사상사, 2016.
-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 조태영·김민정,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BOK 경제연구 2020-17호, 2020.7.
-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